**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소식을 드립니다. 동역자님들도 평강으로 결실의 가을을 보내시길 소원하며, 저도 올해는 이 땅에서도 처음으로 여름을 지내는 것이 힘들었는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한기를 느낍니다.

집 베란다 화분에 들깨 씨를 뿌리면서 시작한 텃밭은 4개 도시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고 씨앗 안의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달 약700 km 떨어진 E시의 S를 방문했을 때, ㅊ 시에 이웃 친구의 이모집이 있어서 텃밭에 무를 심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도시에 조리학과 후배 동료 교사가 여자 기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나는 길에 찾아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학교 이름만으로 찾아가서 만난 SN은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고 초면이지만 S의 지인이며 제가 한식 강사였다는 것으로 스스럼없이 교제했고 동료 교사의 텃밭과 학교 텃밭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교장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가까운 곳에 남녀공학 기술고등학교에 농업과가 있으니 교장과 통화해서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장이 그 학교에 비닐하우스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학생들과 농업과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무와 여기저기서 씨를 모아 부추, 쑥갓, 배추를 심고 왔는데, 무에서 싹이 났다고 사진을 보내와서 이번주 금요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께서 이 도시와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AS 시에는 옷수선을 하는 F와 연결되어 남녀동생과 두 아들 가족들과 이번주에는 삼촌 가정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저의 텃밭에 심은 쑥갓도 따고 주중이라 없는 F 네의 고춧잎을 따서 여동생에게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주고 오이를 수확하는 남동생 부부와 숙모와 아들까지 불러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고춧잎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데 숙모 M이 우리 비닐하우스에 고추가 많으니 잎을 따 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F 가족의 땅 바로 옆에 삼촌네 땅이 있고 1년에 6개월은 농사를 짓고 겨울은 제가 사는 도시에서 지내는데, 집이 F와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농번기에는 가정 방문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기경해주시기를……

저의 옆 동사무소 여자 동장을 CE 통해 알게 되었는데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허락해주어서 동사무소 뜰 텃밭에도 무를 조금 심고 교제하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진 지역에서 온 영혼과 이혼한 부인 등이 연결되고 학생인 자녀들이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곳 외곽에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올해 곳곳에 땅이 있는 영혼을 알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교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주부터 시내에 있는 국제교회 부속 건물에서 ‘아프칸교회’의 여성들에게 한식 수업과, 학생들에게 기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합니다. 한국어는 오랜만에 가르치는 영역이라 지혜가 필요하고, 한식은 이 나라 언어로 가르칠 것인데 아프칸 사람들과 의사소통, 불과 칼을 사용하는데 안전하고 도구와 재료 등 준비할 여러가지가 순적하도록, 신분의 보안과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3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준비하는데 이곳의 여러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지 않기를, 한국에서의 일정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건강검진도 교회 선교관 일정에 따라 이랜드 클리닉에 11월 초순에 예약할 예정인데, 시간 활용을 지혜롭게 해서 내년과 다음 사역 준비가 순적하기를 기도하며 동역자님들께 기도 부탁과 함께 국내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짧은 소식을 나눕니다.

 2023. 10. 5. 김에스더 드림